

**I. 이달의 소식**

- | | |
|-----------------|-----|
| 1. 정기모임 안내 | 1쪽 |
| 2. 창조과학기본과정(안내) | 2쪽 |
| 3. 지부소식 | 36쪽 |

II. 특집

- | | |
|-------------------|----|
| 1. 유신론적진화론(2)간격이론 | 4쪽 |
|-------------------|----|

III. 내용

- | | |
|-----------------------------|-----|
| 1. 정재훈칼럼(21) 방사성연대측정법의 오류II | 7쪽 |
| 2. 성경여행(90)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다 | 11쪽 |
| 3. 창조기사(46) 돌연변이의 행진 -이종현역 | 14쪽 |
| 4. 창조과학 스터디 모임(3)(4) | 22쪽 |

창조와 신앙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복음서에서 꽃이 피고 계시록으로 끝난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명멸을 거듭하였다. 어떤 불신자는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똑 같다고 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가 넘친다고 어찌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동일시 할 수 있겠는가?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보다 내 몸속의 정상 세포가 변하여 암세포가 되면 더 무섭듯이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정통 교단 속에 숨어 있는 진화론에 오염된 위험한 교리들이다. 많은 신학자가 아담과 창세기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부인하고, 진화론에 오염된 창세기 해석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신앙을 오도한다. 기초가 집의 수명을 결정하듯이 올바른 창조 신앙이야말로 말로 혼란한 오늘에 있어서 참된 복음적 신앙의 기초이다. 창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를 왜곡하는 것은 현대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창조는 신앙의 근본이자 뿌리이다.

- 글: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전시관장 권진혁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지부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1교시(기본) 인체의 신비와 2교시(심층) 강연이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6시 30분부터 간식)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전시관

주소: 대구시 남구 현충로 64(4층)

문의: ☎ 070-4095-6420, 010-2051-092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2017년도 창조과학 기본과정

-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복음전도의 강력한 도구로 창조과학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 **모집대상:**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
(자격제한 없음)

• **주요 프로그램:**

- 창조와 진화
- 노아의 홍수와 방주
- 창조과학 주요 강연 수강
- 최신 창조과학 핫이슈 토의 등

• **교육기간:** 2017. 02. 13 ~ 03. 13 (5주 과정)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반)

• **등록비:** 7만원

• **장소:** 온누리교회(경주)
(경주시 원화로 484 성보빌딩 4층)

• **참가신청/문의:** 010-2051-0922
(지명구 간사, 카톡아이디 jimg)

• **특기사항:**

- 심화과정 수강자격 부여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명의 수료증 수여
(4주 이상 참석 및 필독서 감상문과 간증문 제출 하신 분)

• **주최:**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식당법인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Daegu Affiliate,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창조과학 기본과정

- 일시: 2017. 02. 13 ~ 03. 13 (5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장소: 온누리교회(경주)

Program

	1주 (2월 13일)	2주 (2월 20일)	3주 (2월 27일)	4주 (3월 6일)	5주 (3월 13일)
18:40-19:00	등록 접수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다과(Tea Time)
19:00-20:00	오리엔테이션 (기본과정 소개) <단체사진촬영> 강의1: 인류의 기원 (강사: 김영호 박사)	강의3: 진화론의 영향 (강사: 이종현 교수 (대구지부 지부장))	강의5: 노아의 홍수와 방주 (강사: 박혜정 박사)	강의7: 우주와 지구창 조의 신비 (강사: 권진혁 교수)	강의9: 진화론의 아이콘 (강사: 전창진 교수)
20:00-21:00	강의2: 생명의 신비 (강사: 신동수 교수)	강의4: 빙하기와 격변 (강사: 강기태 강사)	강의6: 지층과 화석 (강사: 갈은주 강사)	강의8: 성경의 과학적 무오성 (강사: 김경태 교수)	강의10: 교과서 속 진화 론 바로알기 (강사: 김종배 교수) 수료식
21:00-21:30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창조과학 토의 및 친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간격이론-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년?

이재만선교사 글



타협이론으로 첫 번째 다룰 이론이 간격이론(gap theory)이다. 간격이론이란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 사이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십억년의 오랜 시간적 간격을 넣으려는 이론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1절과 3절 사이에 커다란 심판이 있었으며, 그 후 3절부터 지금의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이론을 다른 말로 재창조설이라고도 부른다.

간격이론은 17세기에 잠깐 등장했었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세상 학계에서 ‘오랜 지구나이’가 거론될 때 차머스(Thomas Chalmers)와 목사 이면서 진화론적 지질학자인 버클랜드(William Buckland)에 의해 다시 대두되었다. 그 후 이 이론에 대한 몇몇 글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이론이 교회에 크게 과급된 것은 1970년에 커스탄스(Arthur Custance)가 자신의 책 ‘혼돈과 공허(Without form and Void: 책의 내용상 여기서는 혼돈과 공허라는 번역이 어울림)’에서 간격이론을 옹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후 20세기에 간격이론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한 주석성경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 안에도 이 이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들 주석성경들은 한결같이 그 내용에서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십억 년) 지구 나이에 동의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백만 년을 넣게 되면

세기와 과학 사이의 모순이 사라진다’는 식이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와서 스코필드 주석성경이 이를 소개함으로 대중화에 공헌했는데, “화석은 원시창조로 설명되며, (그러면) 창세기의 우주진화 모양과 과학은 모순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한국의 보수교단 신학교에서도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데 있어 이 이론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간격이론은 간격이 없는 2절 앞에 수십억 년의 기간을 넣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그 안에 넣었다. 실제로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을 이 간격 안에 넣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탄이 이 간격 때 타락했으며, 이때 타락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재창조를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사탄인 루시퍼의 홍수가 있었다고도 하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만든 간격이기 때문에 이들은 간격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도 자신들이 쉽게 만들어버린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사탄과 귀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이 이론을 많이 사용한다.

간격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인 2절을 대혼란(chaos) 또는 무질서로 보는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혼돈과 공허’라고 번역되어 있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대부분 ‘without form and void’ 또는 비슷하게 번역되었으며, ‘우리말 성경’에서도 영어와 같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로 번역되어 있다. 이 단어는 무질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창세기 1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 역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필즈(Weston Fields)는 간격이론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의 번역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창세기 1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2절의 모습을 무질서가 아닌 ‘unformed and unfilled’ 즉, 아직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워지지 않은’ 창조의 한 과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르다고 주장했는데 가장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이사야서 45장에서 땅을 묘사할 때 “그가 땅을 ...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18절)라고 언급했다. 영어 성경에서도 “not create it a waste”(NASB) 또는 “did not create not in vain”(KJV)라고 번역하였다. 결국 땅은 혼돈되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접속사 ‘wow’에 대한 문제이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즉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까지 매절마다 ‘그리고(and)’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wow’가 들어있다. 영어번역 가운데 접속사를 하나도 빠지 않은 KJV나 NASB 등으로 보면 매 절마다 맨 앞에 등장하는 ‘and’가 쉽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즉 창세기 1장 전체의 창조과정 가운데 어떤 곳에도 시간적 빈틈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긴 시간을 넣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이다. 성경을 믿되 진화론과 함께 믿어보려는 시도다. 즉 성경 어딘가에 진화론적 긴 연대를 넣어야만 믿어질 것 같은 마음에서다. 그러나 지구상에 지질시대라는 진화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이론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또한 오랫동안 대혼란이 있다가 그 이후부터 성경기록대로 창조되었다는 식의 역사는 진화론자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타협이론의 특징은 이를 쫓아가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진화론과 일치하는 것 같아 만족하지만, 결국 성경 전체로는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한 목적, 예수님의 복음까지 성경 전체에 손상을 가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 어딘가 적혀있어야 할 터인데, 성경에는 그런 혼돈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없다. 오히려 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감탄사만 등장하며, 죄 이전의 어떤 고통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것이다(창 3:18; 롬 8:22). 성경은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했다(고전 15:45; 롬 5:12). 이 간격이론대로라면 그 화석이 모두 이때 만들어졌으므로 아담 이전의 모든 것들이 고통과 함께 죽었던 적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간격이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며 인간의 죄의 결과도 약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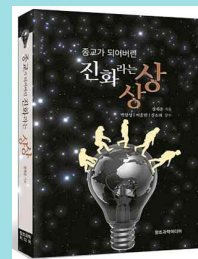
앞서(Creation Truth 2015년 6월호) 유신론적 진화론이 옳은 발상인가를 점검하는 네 가지 기본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간격이론에 적용해보자.

1. 진화론과 지질시대가 과연 확립된 과학인가? No
2. 창세기의 창조 순서와 진화 순서가 일치하는가? No
3. 그 이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가? No
4. 그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No

그러므로 우리가 간격이론을 받아들일 어떤 이유도 없다. 단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에서 등장한 것이다. **창조**

21. 방사성 연대측정법의 오류 II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상상	
21	방사성 연대측정법의 오류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정재훈	



방사성 연대측정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성경 맹신도들의 아마추어적인 억지가 아니다. 방사성 연대측정법의 오류를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책을 통해서 만난 과학자들 말고도 나와 친분이 있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방사성 연대측정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 중에는 물리학·지질학·생물학 전공자도 있고 국내 저명한 과학자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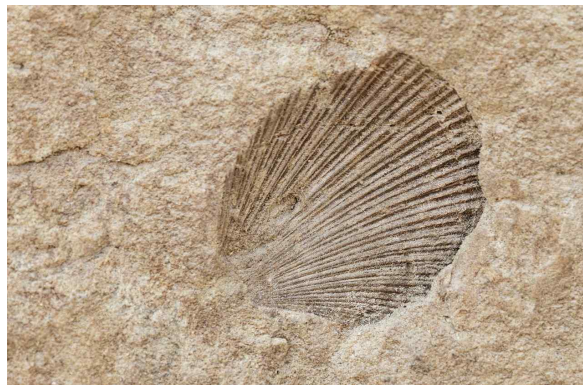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구가 오래된 것이라는 굳건한 신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패러다임은 방사성 연대측정법과 이 측정법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과학적 데이터는 실험상 오류로 간주한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인용문) 연대를 측정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연대라고 생각하는 암석들은 선택하고 틀린 것으로 보이는 표본들은 오류로 여기고 폐기해 버린다. [292]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소수의 값은 배제하고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한 직선상에 모여 있는, 즉 ‘평탄역’에 있는 다수의 값들로 결론을 내린다. [293]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대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 연대는 버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어느 지질학자는 말했다. [294] 과학도 패러다임에 의해서 작용되는 불완전한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자신이 선택한 신념을 따르는 것뿐이다.

창조론자가 아닌 리처드 밀턴의 『다윈도 모르는 진화론』을 통해 방사성 연대측정법을 살펴보았지만, 창조론 측의 책을 보면 방사성 연대측정법의 신뢰성은 아예 없다. 『젊은 지구』를 통해 지질학 전공자이며 현재 미국 창조과학연구소 명예회장인 ‘존 모리스(John D. Morris)’가 밝히는 연대측정의 비밀을 소개한다.

(인용문) 화석이 아주 잘 보존된 석회암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석회암의 나이를 알고 싶어서 가까운 대학 지질학과 교수를 찾아간다. 다행히 그 교수가 당신이 가지고 간 석회암에 흥미를 갖고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이를 측정한다. [295]



〈조개화석〉

지질학 교수에게 가져간 석회암은 방사성 연대측정법을 직접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사성 연대측정법은 석회암 같은 퇴적암에는 적용할 수 없고 대부분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화성암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회암에 화석이 포함되어 있다면 석회암의 연대는 오랜 연대설적 순환논리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다. 석회암에 포함된 ‘화석’에 이미 진화론적으로 매겨져 있는 오랜 연대로 석회암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다. 석회암에 조개화석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조개화석의 모양을 『무척추 고생물학』이란 책을 통해 찾고, 책에 기록된 데이터로 이 석회암은 나이를 얻게 된다. [296] (물론 이 이야기는 창조론자인 존 모리스가 창조론적인 관점으로 쓴 글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질학자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모든 화석이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화석을 ‘표준화석’ 또는 ‘시준화석’이라하는데, 지질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떤 화석이 표준화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오직 특정 퇴적층에서만 발견되어야하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면서도 생존기간은 지질시대로 봤을 때 비교적 짧아야 한다. [297] 그런데 표준화석에 대한 이런 정의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석으로 선정된 화석이 특정 퇴적층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게다가 7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이라던 실러캔스는 여전히 화석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있고, 3억 년 전의 것이라던 석탄층에서 발견된 ‘쇠로 만든 용기’며, [469] 오랜 연대설로 사람이라는 종이 살지 않았던 중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망치’ 등은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지질시대, 표준화석, 살아있는 화석 등의 개념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의심하게 만든다.

방사성 연대측정법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왜 이 도구를 신뢰하는 걸까? 그것은 진화론자들의 오랜 연대에 대한 ‘소망’이 방사성 연대측정법으로 측정된 결과와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오랜 연대설과 진화론은 과학계의 견고한 성이다. 비주류인 젊은 연대입장이 이 성을 공략하는 것은 어렵다. ‘쿵’도 자신이 쓴 『선사시대와 지구의 원형』의 서문에서 ‘예상치 못한 바도 아니고 이유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대기와 해양의 연대가 짧다는 증거에 관한 논문들은 대기권과 수권에 대한 예외적인 연대학으로 취급되어 늘 출판이 거부되곤 한다.’라고 했다. [298] 무엇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출판을 막은 것일까? 그것은 과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오랜 연대설을 갈망하는 생각의 틀이다.

만약 누군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 아닌 30억 년이라고 주장한다면, 오랜 연대지지자들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싸움은 증거물을 두고 벌이는 과학적 공방이 아니라 상반된 패러다임 때문에 벌어지는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현재 이 싸움의 승산은 거의 오랜 연대지지자들에게 있다. 이들에 의해 46억 년이 아닌 지구의 기원 연대는 모두 예외적인 연대학으로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혁신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지만, 그다지 바뀌지 않은 정치구조나 교육혁신을 외치는 수많은 교사들이 현장에 뛰어들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교육현장과 비슷하다. 성은 견고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꿀 수는 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오랜 연대설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대중적으로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다양하다. 그리고 모든 측정법들이 오래된 지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나이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많다. [299]

(인용문)나(물리학자 러셀 험프리)는 지구 나이를 얻기 위해 사용된 수백 개의 과정을 평가해 왔다. 이들 중 단지 10여 개만이 수십억 년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나머지 90%는 수십억 년보다 훨씬 젊은 연대를 보여준다. [300]

지구의 자전 속도, 대기 중 헬륨의 양, 자기장의 감퇴, 화석들에 남아있는 DNA, 다시 살아나는 박테리아, Y-염색체의 DNA 염기서열 변이, 공룡의 혈액세포, 다지충 나무화석, 석탄과 석유, 바다의

소금 양, 인류의 역사와 인구수, 달의 후퇴율, 초신성들의 크기와 팽창률, 토성 고리들의 변화율과 소멸률 등 수많은 데이터는 지구가 오랜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지층나무화석〉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창조](#)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다

(열왕기하 18장)

앗시리아는 북쪽에서 150년 이상 동안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져서 점차적으로 앗시리아가 넘보게 되었다. BC 722년이 되기까지 앗시리아인들은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결국에는 점령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으며, 유력한 사람들을 앗시리아에 포로로 데려갔다. 몇 년 뒤에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만났다.



포로들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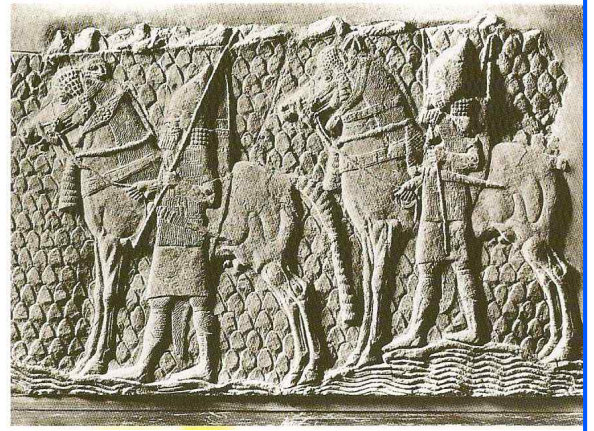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의 나라는 BC 722년에 앗시리아인들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러나 유다는 그 이후에도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가기 전까지 136년 동안 살아남았다.

<앗시리아인이 수년 전에 골리앗에 대항하여 다윗이 사용했던 것과 많이 비슷한 투석기를 사용하여 투석하고 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우상숭배라는 악한 관행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경건한 왕이 오랫동안 번성하도록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금새 잊혀졌고,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유다에 떨어졌다.

히스기야의 통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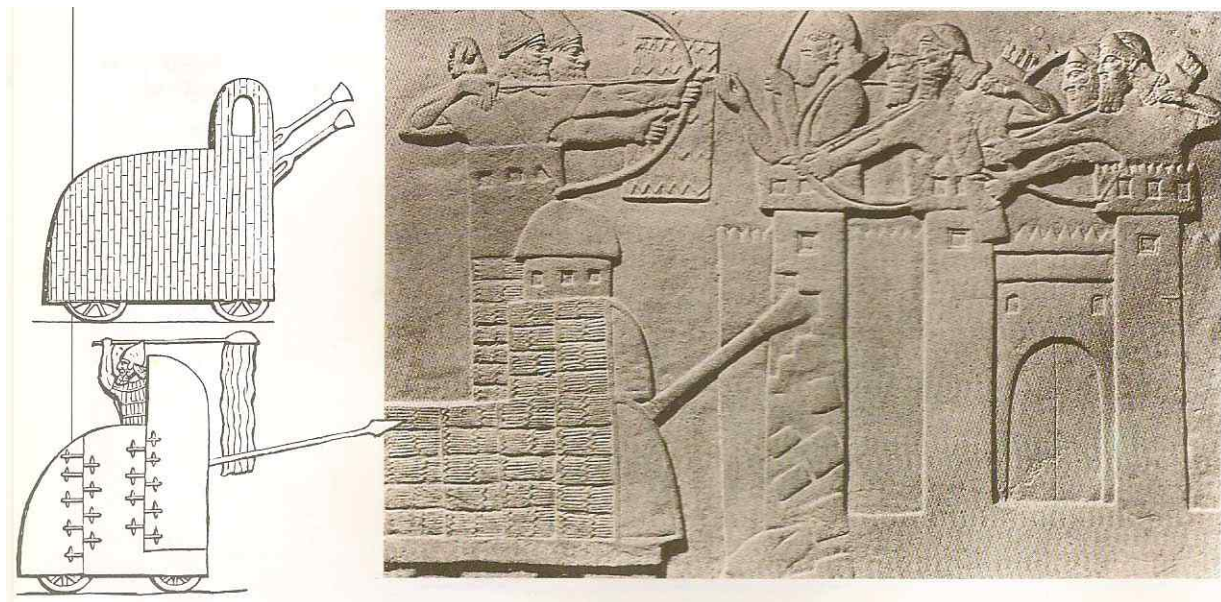
유다의 어떤 왕도 다윗과 솔로몬에 필적할만한 종교 개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BC 716년에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사악한 통치자였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분명하다.



<산헤립의 기병이 행진하고 있다.>

16일 안에 성전을 새로 열고, 수리하고, 이방 우상들을 깨끗이 치워버렸다. 매일의 희생제를 다시 시작했으며 성전에는 노래와 음악이 가득 찼다.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으며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몇 년 뒤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신실한 히스기야는 자기의 성이 공격받을 것에 대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왕하 18:19-20, 대하 32:1-5). 그러나 또한 그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주실 하나님을 신뢰했다(사 36-37).



<앗시리아인이 튼튼한 성문이나 성벽을 부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쟁 무기인 앗시리아의 타격용 공성망치. 오른쪽: 앗시리아의 궁수가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고 있는 타격용 공성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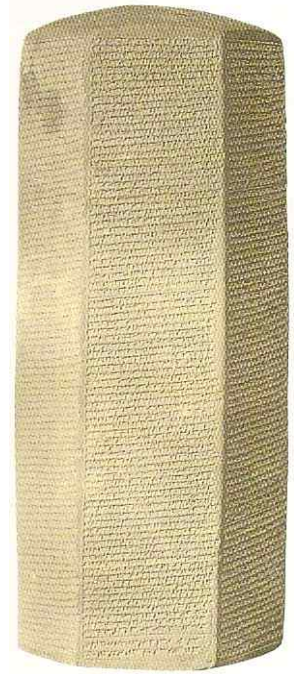
산헤립-강력한 왕

앗시리아가 힘이 가장 셀 때는 이집트를 포함하여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굴복시켰

다. BC 701년 경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여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였으며, 히스기야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해서 그는 성전에서 은과 금을 벗겨냈다.

예루살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단단한 암석 지하에 1,777 피트가량 터널을 뚫어서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었다. 그런데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 바로 전에 므로박발라단이 바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산헤립이 그곳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BC 689-686 경에 다시 돌아와서 성을 포위했다.

히스기야는 패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신실한 통치를 아뢰었다. 하나님은 앗시리아 군인 185,000명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이 당시 유다가 비교적 약한 국가였지만, 강력한 앗시리아 왕일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되었다.



<산헤립의 통치 사건
이 기록된 프리즘.>

앗시리아의 전쟁 무기

앗시리아가 막강해지자 그들은 교묘한 전투 전략과 무기를 개발했으며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듯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국경을 확장해 갔다.

앗시리아인들이 성을 향해 진격할 때 처음에는 성을 둘러싸고 야영한다. 몇일 안에 자기들 천막 주위로 거대한 흙벽을 쌓고 거기에 전망대, 오르막길, 그리고 접근로를 만든다. 자기들의 야영지를 잘 강화하고 나면 앗시리아 군인들은 성벽 근처에서 작은 습격 및 불들로 적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공격이 시작되면 앗시리아인들은 빠르게 친다. 머리 부분을 철로 씌운 타격용 공성망치로 성벽과 성문을 끊임없이 타격한다. 군인들은 수많은 사다리를 놓고 벽을 올라간다. 성문이 부숴지면 나머지 군대가 성안으로 쇄도하여 성을 멸망시킨다. [참조](#)



<앗시리아인이 전투 희생자의 머리를 세고 있다.>

돌연변이의 행진

족보견과 인공선택

애완동물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족보견을 선택한다. 그들은 비교적 값이 비싸지만, 다 자란 후의 크기나 기질 등을 예측하기가 쉽고, ‘똥개’보다는 순종견을 기를 때 필요한 사항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BBC 다큐멘터리 “족보견 드러나다/Pedigree Dogs Exposed”에 따르면, 순종견을 기르는 것이 돈이 더 들 뿐 아니라 유전학적인 대가가 필요하다.



유전적 분화

모든 개는 늑대를 닮은 조상의 후손이다. 이 조상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개를 치와와(Chihuahua)나 그레이트 데인(Great Dane)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크기로 개량하는 것이 가능했다. 색깔과 기질, 훈련에 대한 필요 등 다른 특성들은 품종 내에서의 다양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창조된 다양한 동물 종류(kind) 내에 얼마나 많은 유전적 변이가 내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일 다른 품종들은 나빠진 돌연변이의 결과이다.

사람들은 수백년에 걸쳐서, 특별히 일정한 특성을 갖도록 선택하여 양육함으로써 다양한 품종을 만

들어 났다; 현재 개의 품종이 200개 이상 있지만, 모두 같은 종에 속하며, 큰 품종과 작은 품종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어서 그들 사이의 결합이 있을법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특성을 가진 품종끼리만 교배를 함으로써 후손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매우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달마시안(Dalmatian)과 달마시안이 짝짓기를 하면 달마시안 강아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그 종류의 개는 공식 품종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되는 데에는 유전적인 대가가 따른다. 그 종축(번식하는 동물)은, 털가족의 다른 색깔이나 길이 혹은 다른 크기와 기질 등, 개의 개체군에 있는 유전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다. 이런 종류의 선택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의도하지 않게 선택되는 다른 기질들이 있다.

크기가 더 커진 품종은 엉덩이 형성장애가 되거나 심장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킹 찰스 스페니얼(King Charles Spaniel, 귀가 축 처지고 털이 긴 애완용 개)은 극도로 심한 조건의 척수공동증에 걸리기 쉬운데, 그것은 두개골이 너무 작아서 뇌를 담기가 힘든 것이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신경과 의사인 클레어 러스브릿지(Claire Rusbridge)는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동물은 가볍게 건드리거나, 옷가지를 살짝만 걸쳐도 극심한 통증, 연속적으로 강타하는 두통이 있다. 예를 들어, 목걸이만 해도 불편을 느낀다.” 그 품종의 최대 3분의 1까지가 그런 상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녀는 믿는다.



총체적으로, 개에게 일어난다고 알려진 유전적 질병이 500개가 있다. 기록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보다 종류는 적지만, 개에 있어서는 그 질병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난다. 문제는 유전자 풀이 많이 고갈되었을 때, 질병을 가진 품종의 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유전자 풀을 더욱 더 약하게 해서 한 품종 안에 새로운 질병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스브릿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똥개’ 혹은 잡종견은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들이 유전학적으로 열성이어서, 복제된 건강한 유전자가 질병에 걸린 유전자를 덮어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질병들이 특정 품종에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종견의 경우라도 서로 다른 품종끼리 교배시키면 같은 품종끼리 교배시키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똥개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 수명이 약간 더 길다.

‘완전한’ 동물 - 개 전시회

초기에 개의 품종개량은 자연 선택을 흉내내는 수준이었다. 개가 양이나 소를 친다든지 침략자를 방어할 수 있는 품종이 되도록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는 정도의 개량이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현대의 품종이 생산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개 전시회가 출현하면서 초점이 기능에서 미관으로 넘어갔다.

경쟁적인 개 전시회가 완벽을 추구해 감으로써, 몸의 비율과 모양이 이전보다 더 극단적인 다양한 품종이 나오게 되었다. 닥스훈트(Dachshund)의 다리는 지난 세기 동안에 매우 짧아진 반면, 등이 길어서 종종 척추에 문제를 일으키며, 종종 간질과 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불 테리어(Bull Terrier)의 머리를 변형시켜서 핏 불(Pit Bull)의 머리처럼 만들어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품종개량자들이 그 두개골을 잡아 비트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일 세기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이 품종이 극심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독(Bulldog)은 비교적 느리게 코뼈가 자랐는데 이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가져왔으며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독일 셰파르트(German Shepherd)를 보면 순전히 미용적인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셰파르트에는 두 가지 품종이 있다: 하나는 일하는 품종으로 종종 경찰견이나 경호견으로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전시용 품종이다. 전자는 본래의 독일 셰파르트와 매우 많이 닮았지만, 전시용 품종은 매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 정형외과 의사인 Graham Oliver는 전시용 품종의 걸음걸이가 운동실조이며, 공동작용과 제어가 전면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개 전시회에 있어서 전시용 독일 셰파르트는 대부분 다 그러하다.



극단적인 인공 선택

영국에서는 커넬클럽(Kennel Club)의 품종 개량 및 전시견 조사를 통하여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쁜 상황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었다. 첫째로, 19세기 중반부터 각 품종의 유전자 풀이 인공적으로 제한 되어서 본래 등록된 자손만 나오도록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주먹만한 개가 있다. 이것은 심지어 그것이 더 건강한 개체를 만드는 것일지라도 한 품종 안에 유전학적 다양성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외견상 절대적으로 완벽한 모양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품종개량자들은 품종의 표준에 가능한한 가까이 들어맞는 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표준에 미달하는 개를 제거하게 된다. 예를 들면, 표준이 아닌 점이나 하얀 점을 가진 달마시안, 혹은 등에 리지(돌출된 부분)가 없는 로디지아 리지백(Rhodesian Ridgeback) 같은 경우 그들을 교배시키지 않거나 혹은 강아지 상태로 도태시킴으로써 그 종의 유전자 풀에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개체가 더욱 더 유전학적으로 메마르게 된다.



셋째로, 극단적인 동종번식이 표준이 되어버렸다. 즉, 한배새끼 교배나 암놈을 할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을 교배시키는 것이 흔해졌다. 진화론 유전학자 스티브 존스(Steve Jones)는 그러한 실행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사람들은 첫째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법적인 일들을, 그리고 둘째로는 동물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몰상식한 교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까운 이종 교배는 계보상에 어떤 바람직한 특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개가 질병에 더 잘 걸리게 된다. 커넬클럽(Kennel Club)의 웹사이트인 www.thekennelclub.org.uk 에는 요즘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 “커넬 클럽은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아들, 혹은 형제와 자매간의 교배로부터 나온 자손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복지의 이유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보통의 가정용 개는 사람의 경우보다 훨씬 더 동종번식이 되기 쉽다.

척수공동증과 같은 유전적 질병을 옮긴다고 알려진 개를 교배시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진 개들이 특히 유명한 종견이라면 수십마리의 한배새끼를 계속해서 낳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유전적 질병이 확산된다.

우생학 관련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Francis Galton)이 설립한 우생학 운동은, 인간 개선의 열쇠가 누가 누구와 생식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제거하고 ‘인종’ 사이의 혼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종을 개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요즈음 우리는 순수함에 관한 우생학자들의 개념이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커넬 클럽이 우생학의 기본적인 가정 하에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몇 개 안되는 기관 중의 하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커넬 클럽에 등록된 모든 개는 최초에 등록된 개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을 갖고 있다. 새로운 등록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개끼리의 교배에서 생겨나거나 등록된 개라도 서로 다른 품종끼리의 교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등록을 할 수 없다.

교배에 관한 우생학자들의 원리 때문에, 품종의 표준에 합치하지 않은 강아지는 가끔 도태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등에 리지(돌출된 부분)가 없는 로디지아 리지백(Rhodesian Ridgeback)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커넬 클럽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대변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게재한 윤리헌장(Ethics Code)을 통해서 그러한 실행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품종개량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등에 리지가 없는 강아지들을 정기적으로 도태시키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강아지를 도태시키는 것을 거부한 젊은 수의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는 로디지아 리지백 클럽의 윤리헌장에 리지가 없는 강아지의 도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한 행동을 금지하도록 그 페이지가 수정되었다.) 리지란 실제로는 이중척추(? spina bifida) 증상의 가벼운 형태일 뿐이므로, 실제로 이 품종에서는 약간의 질병을 가진 개가 건강한 동물보다 더 선호되는 셈이다.



유전적 불모지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현대 품종들을 유전적으로 매우 불모가 되게 했다. 어떤 품종의 경우에는 40년 전에 그 품종 안에 들어있던 유전적 다양성의 10%만 그 품종의 요즘 후손에게 전달된다. 예를 들면, 퍼그(Pug) 품종의 경우 영국에 10,000마리가 있지만, 50마리에 해당하는 유전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2004년에 제프 샘슨(Jeff Sampson) 박사는 이렇게 썼다:

“불행히도, 순종견을 얻기 위한 활동의 일부로 시행된, 제한된 품종개량의 양상은 모든 품종에 대해 부수적인 손상을 동반했다. ... 점차적으로, 유전되는 질병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품종의 개에게 심각한 질병의 부담을 부과한다.”

커넬 클럽은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기한 논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가까운 동종번식을 금지했으며, 또한 품종개량의 목적으로 건강한 강아지를 도태시키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그들은 또한, 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개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과대시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품종의 표준도 개정했다. 또한 인정을 받는 품종개량자는 유전적 질병을 걸러내는 모든 건강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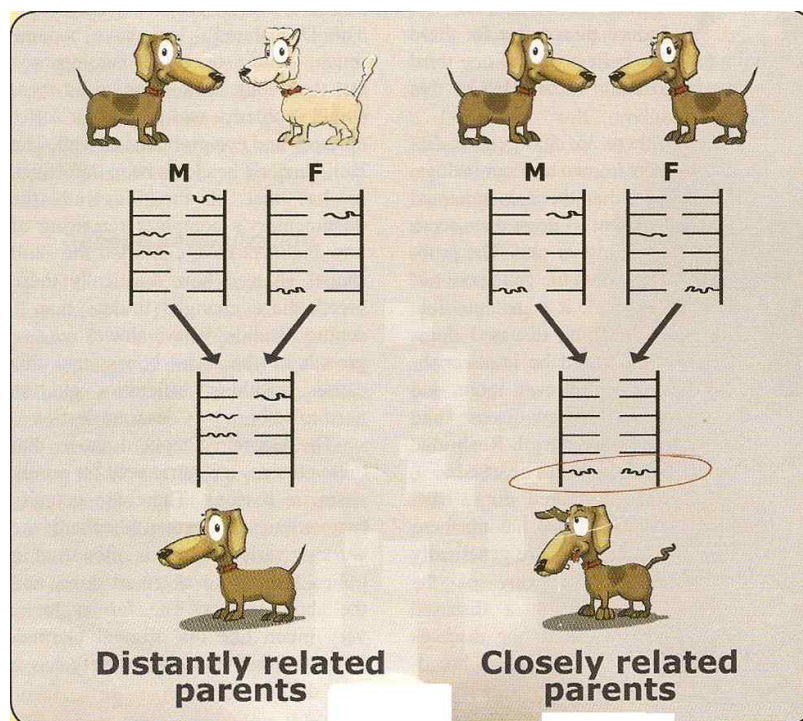
여러 개의 품종에 대한 오늘날의 상태를 보면, 선택을 너무 극단적으로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개들은 보다 완전해지는, 즉 ‘진화를 하는 것’과는 달리,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비평가가 인용했듯이 “돌연변이의 행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특성화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종의 ‘잡견’에 비해 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수명이 더 짧다. 인공선택이나 자연선택은 모두 집단 내의 유전 정보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것은 진화론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이다.

(참고1) 동종번식의 위험

이 개들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한 펠침(? stretch)의 DNA를 물려받았다. 여기서 약간의 좋은 유전자와 돌연변이들을 본다. 아래 왼쪽의 개는 먼 관계의 부모로부터 나온 자손이라서, 어머니의 DNA가 갖는 결함이 아버지의 DNA와 다르다. 어머니의 결함 있는 유전자 모두가 아버지로부터의 보완 복제(backup copy)에 의해 감춰지며, 그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래 오른쪽에 있는 불행한 개

가까운 관계의 자손으로,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돌연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표에서, 그 개는 한 쌍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것은 모세의 시기 이후부터 하나님이 왜 형제 자매의 근친결혼을 금지시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타락의 결과임을 주목하라.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매우 좋게” 창조하셨는데(창 1:31), 이것은 나쁜 돌연변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조주간 이후 몇 세대에서는 사람과 동물에 돌연변이가 매우 적었으며, 이것은 가까운 근친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까운 형제자매의 근친결혼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로써 오래된 유언비어인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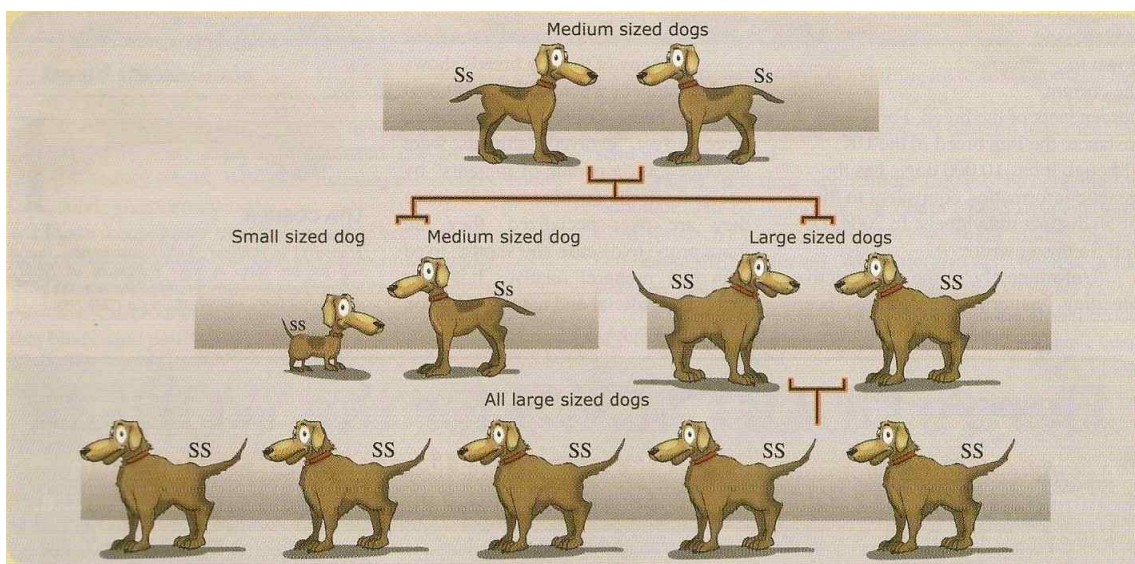
(참고2) 인공선택이 어떻게 정보를 고갈시키는가?

(설명을 위해 단순화 한) 아래의 예에, 하나의 유전자 쌍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개에 두 개의 가능한 형태가 들어있다. 한가지 형태의 유전자(S)는 큰 크기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고, 다른 것(s)은 작은 크기에 대한 지시를 전달한다.

제1행에서는 중간 크기 동물(Ss)의 이종교배로부터 시작한다. 이 개들의 각각의 후손은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자 한 개씩을 받아 각자 두 개의 유전자를 만든다.

제2행에서는 결과적으로 후손이 크거나(SS), 중간(Ss) 혹은 작은 크기(ss)를 가질 수 있음을 본다. 그런데 품종을 개량하는 사람이 큰 개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그들은 다음 세대의 품종 개량을 위해 가장 큰 개들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큰 개들만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한다(제3열). 따라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개들이 새로운 큰 품종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인공선택이지만, 그들의 환경에서 큰 개가 우성을 나타낸다면 자연 선택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할 것이다. 다음을 주목하라:

1. 그들은 환경에 맞게 **적응**되었다. 이 경우에는 품종개량자들이 큰 개를 원한다.
2. 그들은 제1행에 있는 그들의 조상보다 더 **특화**되었다.
3. 이것은 인공선택을 통해 일어났는데, 자연선택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4. **새로운 유전자**가 더해진 것은 **없다**.
5. 사실상, 개체군에서 유전자를 잃어버렸다. 즉, **유전정보의 손실**이 있었다. 이것은 미생물이 인간으로 진화된다는 사실이 신빙성을 갖기 위한 것과 반대된다.
6. 작음에 대한 유전자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 작은 개가 지녔던 기타 다른 독특한 유전자도 잃어버렸다. 예를 들면 그들 중에는 참을성이 많거나,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을 수 있지만, 개체군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그들 자신에게 있는 유전자는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피조물(whole creature)**이며 **모든**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7. 이제 개체군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작은 개가 더 유행하게 되거나, 어떤 환경에서는 작은 개가 더 잘 작동한다면, 이 개체군에서는 그런 품종이 나올 수 없다. 또한 그것들은 작은 개가 지닐 수 있었던 좋은 유전자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불모로 되었다. **창조**



출처 : Creation ex nihilo Vol. 32(2010), No. 3, pp. 28-32

창조과학 스터디모임(3)

일시: 2017년 1월 12일(목) 19:00 ~ 21:20

장소: 경북대학교 생물관 213호, 참석자 13명

학습내용

교재: 창조과학, 자주하는 질문 모음집 (한국창조과학회)

학습 범위: 2장 2-1 노아 방주, 2-2 노아 홍수(30-63쪽)

2-1-11. 방주 내로 그 많은 동물들을 7일 만에 다 태울 수 있습니까?

- 창 7:4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신 말씀임. 7일 내에 동물을 다 태운다는 것은 상기 말씀을 오해한 것임

2-1-12. 방주 내로 태워지는 각 동물의 숫자는 암수 일곱씩입니까, 둘씩입니까?

- 정결한 동물들은 암 수 일곱씩, 부정한 동물들은 암 수 둘씩임

2-1-13. 공룡도 방주에 실었습니까? 실었다면 그 큰 공룡을 어떻게 방주에 실을 수 있었습니까?

- 방주에는 아마도 공룡의 새끼들을(또는 알) 태웠을 것으로 추정됨

2-1-15. 방주 내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1년여 동안 먹을 먹이와 물은 엄청난 양일 텐데 그 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까?

- 동물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최대 35,000 마리의 동물이 탔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방주용량의 28%이고, 16,000 마리의 동물이 탔다면 용량은 13%이며, 먹이 6-12%, 물 9.4%와 함께 이것들이 차지하는 방주내 공간은 28.4-49.4%임.

2-1-18. 모든 동물이 창조시에 초식을 하였다면 육식에 필요한 송곳니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 첫째,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육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음
- 둘째, 육식에 필요한 기관들은 원래에는 다른 어떠한 양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음
- 셋째, 아담의 범죄 이후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 만들어졌을 수 있음
- 넷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쫓겨난 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었을 수 있음

2-1-19. 방주 내에 동물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노아의 방주에는 이러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

2-1-24.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였다면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기록은 고대와 중세의 많은 문헌에 나타나 있음(상세 내용은 교재 40~44쪽 참조)

2-2. 대홍수

2-2-1. 노아 대홍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창6:5~7)

2-2-2. 노아 대홍수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 홍수는 노아가 육백세 되던 해 (약 BC 2,350년경으로 추정)에 일어났는데, 노아가 방주 내에 있었던 기간은 371일임

2-2-3. 노아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 홍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들: (1) 성경적 증거, (2) 지질 지형학적 증거, (3) 화석학적 증거, (4) 역사적 증거, (5) 인구통계학적 증거 (상세 내용은 교재 46~51쪽 참조)

2-2-4. 세계적으로 육지 깊숙한 곳이나 높은 산 위에 염호가 존재하는데 이는 홍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언젠가 바닷물의 침습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결론임

2-2-5. 노아 홍수 시 식물들은 어떻게 바닷물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 식물들의 씨앗으로 살아남았을 수 있음
- 식물들은 홍수 시 떠다니던 거대한 나무 매트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 일부 식물들은 방주 내에 비축된 먹이 중에 섞여서 우연히 또는 노아에 의해서 많은 종자들이 계획적으로 보관되어 살아남았을 수 있음

2-2-6. 노아 홍수시 민물고기는 어떻게 바닷물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 실제 그들 중 많은 수가 살아남지 못했음.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화석의 95% 이상이 바다생물임
- 홍수 중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서로 다른 층을 이루고 있을 수 있음
- 홍수 환경에서 어떤 지역은 민물로 고립된 지역이 있었을 것임
- 홍수 전 바다의 염분농도, 온도, 혼탁도 등을 알지 못함
- 민물과 바닷물에서 같이 사는 물고기들이 있음(예, 연어 등)

2-2-11. 동물들은 대홍수 이후 어떻게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동분산하게 되었습니까?

- (1) 오늘날 동물들은 대륙과 심지어 광막한 바다를 놀라운 속도로 횡단하며 이동할 수 있음
- (2) 과거의 대륙은 바다에 의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
- (3) 창조과학자들은 대부분 홍수 후 한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동안 대륙은 연결되어 있어서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

2-2-15. 고대문명들은 다같이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는 노아 홍수를 의미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사실이다. 대격변적 대홍수에 대한 기억이 지구상 대부분 민족들의 신화나 전설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임(상세 내용 교재 참조)

토론내용

〈스터디 공부 중에 나눈 토론 내용 요약〉

□ 공룡이 노아 방주에 탔을까?

- 공룡은 파충류로서 어릴 때와 다 컸을 때의 몸집의 크기 변화가 매우 큰 동물임. 따라서 노아 방주에는 어린 새끼가 탔을 것임
- 공룡 중에서 제일 큰 공룡은 사이스모 사우루스(몸길이 50미터)인데 성체가 아닌 어린 새끼라면 노아 방주에 탈 수 있음
- 참고로, 제일 작은 공룡은 콤프소그나투스(몸길이 60센티미터)인데 닭 정도 크기임

□ 노아 홍수 이전에 육식이 있었나?

- (발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이나 노

아 홍수 당시에 육식하는 동물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 노아 홍수 이전에 동물들 사이에 서로 잡아먹는 육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음
-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그 화석이 노아홍수 때에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고, 노아 홍수 이전에 육식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 성경에 의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육식이 허락된 것을 보게 됨

□ 노아 홍수 이전의 장수와 공기 중 산소농도의 연관성

- (발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수 백년 이상이었었는데 이것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가?
- 켄트 호빈트의 창조과학 강의 영상(유튜브)에 보면, 호박 속의 기포를 분석한 결과 31% 산소농도인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공기 중에 높은 산소농도와 지금보다 2배 높은 기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의 수명이 긴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함
- 최근, 산소농도가 높은 챔버에 환자를 일정 시간 둬으로써 건강이 좋아지도록 치료하는 방법이 일부 활용되고 있음. 즉, 지금 공기 중 21% 농도의 산소 농도보다 더 높은 산소농도일 경우에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다른 측면에서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지금보다 많이 높으면, 산불이 났을 때에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높아서 산불이 거세게 타들어가서 불을 끌 수 없게 됨
- (정리) 노아 홍수 이전에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농도인지는 모름. 노아 홍수 이전의 수백년 이상의 긴 수명의 원인으로 높은 산소의 농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산소농도도 수명 연장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다양하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음

□ 노아방주는 지금도 아라랏산에 진짜 있나?

- 아라랏산에서 노아방주를 목격했다는 많은 증언들이 보고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 그러나 아라랏산에 노아방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고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결론내릴 수 있음. 즉, 아직은 아라랏산의 그 물체가 노아방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름. 단지,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것임

□ 노아홍수 전에 비가 내렸나?

- (발제) 노아홍수 이전에도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는 창조과학 글(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을 봤는데, 노아홍수 이전에도 비가 내렸나?
- 노아홍수 때에 비가 40일 밤낮을 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비가 처음 내렸다는 기록은 없음. 그러나, 노아홍수 이전에는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 땅을 적셨다는 기록이 있음

- 노아홍수 이전에도 대류현상에 의해서 호수나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산야에서 물방울이 응집하여 뭉쳐서 땅으로 떨어져서 비가 되어 내렸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면, 무지개도 노아홍수 이전에 있었나? 라는 의문이 생김. 이에 대한 추정으로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빛의 반사에 의해 생기는 무지개가 없었을 수 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의 물층이 없어져서 빛의 반사에 의해서 무지개가 생성되었을 수 있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임
- (정리) 노아홍수 이전에 비가 내렸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이것은 추정임.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 (그것이 반드시 첫 번째 무지개라는 언급은 없음.)

□ 노아 홍수 전 바닷물은 짠물이었나?

- (발제) 노아 홍수 전에도 바닷물은 짠물이었나? 그렇다면 바닷물이 왜 짠가?
- 노아 홍수 전의 염분 농도 등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음. 다만, 노아 홍수 이전에도 '바다'라고 칭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바다'라고 칭하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면, 노아 홍수 이전의 바다도 짠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교재의 육지 내 염호 생성에 대한 내용 참조

기타토의

□ 스터디 모임 관련 토의

- 월 2회, 둘째 목요일과 넷째 목요일에 스터디 하기로 함
- 모임 진행: 다과친교, 찬양(기도), 교재공부, 토의, 기도, 마무리
- 진행방식은 매 모임에서 교재의 일정 분량을 김영호 팀장의 사회로 함께 읽고 자유 토의하며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
- 현재 교재 후 다음 교재는 다음 달에 정하기로 하고, 대구지부 재원으로 교재를 구입하여 배포하여 스터디에 교재로 사용함
- 신입 멤버: 이아람 선생님 (영안교회, 초등교사), 이동찬 형제님 (대가대 15학번, CCC) => 정재훈 팀장님의 권유로 참석함

다음 모임

2017년 1월 24일(화) 19:00 ~ 21:10

(교재, 2-3 궁창 위의 물과 큰 깊음의 샘 (64~84쪽))

스터디 모습



창조과학 스터디모임(4)

일시: 2017년 1월 24일(화) 19:00 ~ 21:20

장소: 경북대학교 생물관 213호, 참석자 10명

학습내용

교재: 창조과학, 자주하는 질문 모음집 (한국창조과학회)

학습 범위: 2-3 공창 위의 물과 큰 깊음의 샘 (64-85쪽)

2-3-1. 공창 위의 물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홍수 전의 기후는 따뜻했을 뿐만 아니라 격렬한 폭풍우도 없었을 것임.
- 대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됨. 창 2장 5,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기록되어있음. (⇒ 토론 내용 참고: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내렸을 수 있음에 관한 창조과학적 주장에 대한 내용 참조)

2-3-2. 공창 위의 물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 이것은 대기권에 의해 떠받쳐 있는 수증기 형태의 물로 생각됨. 즉,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요와 같은 수증기막 형태로 '수증기 덮개'(water vapor canopy)라고 함.
(⇒ 토론 내용 참고: 예전에 수증기 덮개 이론이 창조과학적 타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즘은 문제가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 대한 내용 참조. 교재 내용이 예전 내용이므로 주로 수증기 덮개 이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하늘의 창이 열리다'라는 창 7장 11절의 말씀은 이 수증기 덮개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태로 변

한 후 비로 무너져 내렸다고 보임.

- 현재 극지방에서 자랄 수 없는 식물들을 함유한 석탄층들이 남극대륙에서 발견되는 등 온화한 기후 조건 하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화석들이 극지방에서 발견됨.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극지방과 적도지방 사이의 온도차가 없었을 것임
- (궁창 위의 물이 있어서) 노화현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해로운 우주복사선의 침투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주었을 것임

2-3-3. 궁창 위의 물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이는 과거에 전 지구에 걸쳐 아열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증거로 증명될 수 있음

2-3-4. ‘궁창 위의 물’은 지구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높은 에너지를 갖고 인간의 세포를 파괴해 노화현상을 일으키는 X선과 같은 고주파 방사선을 완전히 차폐하는 역할을 했을 것임
- 노아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900살 이상 살았음

2-3-6. 어떻게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까?

- 창7장 11절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전 먼저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음. 이는 엄청난 지하수가 터져 분출하고 화산들도 폭발하여 발생된 화산재가 응결작용을 일으켜 하늘의 창들을 열어 엄청난 강우가 시작되었음
- 전 지구적인 홍수가 되기 위해서는 해저가 솟아오르거나 대륙이 가라앉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 그래서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바닷물의 육지 침범이 고려되어야 함

2-3-7. 큰 깊음의 샘이란 무엇이며, 대홍수 당시의 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 이 깊음의 샘들이 노아홍수 때 150일간의 물 공급의 중요한 근원이었다면, 그들은 광대한 양의 물을 함유하고 있었음
- 지각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각내부에 압력을 받으며 갇혀있던 물이 갑자기 분출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오늘날 폭발하는 화산의 90% 이상이 물(주로 수증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과 노아 홍수시대에 퇴적된 것이 분명한 퇴적암층의 화석지층들 사이에 수많은 화산석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로부터 깊음의 샘들이 일련의 화산폭발과 함께 거대한 물을 방출한 것으로 믿어 짐

2-3-8.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 창일했던 물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가장 큰 원인은 홍수기간 중 계속된 육지의 융기와 침강 같은 조산운동에 의한 것임. 즉 지층판의 대이동과 지각 변동에 의해 바다는 깊어지고 대륙이 융기함으로써 물이 후퇴하고 육지가 드러났음

2-4. 노아 홍수의 영향

2-4-1. 빙하기는 노아 홍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북부아시아, 북부 유럽, 캐나다, 미국의 1/4 지역이 한때 빙하로 덮였었다는 풍부한 증거들이 발견됨
- 〈빙하형성과정〉 홍수전의 지구기후는 전체가 온난한 아열대 기후였을 가능성이 크고, 홍수 동안 많은 해저 화산활동으로 인해 바닷물은 덮여져, 홍수가 끝났을 즈음 바다는 오늘날보다 따뜻했을 것임. 이러한 따뜻한 바다는 습기를 대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시킴으로서 따뜻하고 축축한 겨울을 만들었을 것임. 홍수 말기에 육지의 표면은 매끈한 진흙 필과 같아서 태양열을 흡수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반사시킴으로써 육지의 온도는 바다에 비해 매우 낮았을 것임. 또한 홍수기간에 분출된 화산재들은 대기 중에서 태양열을 반사시켜 추운 여름을 유발하였을 것임. 많은 증발, 따뜻한 겨울, 강력한 폭풍, 추운 여름의 결과는 무엇? 그것은 빙하기였음

2-4-2. 어떻게 거대한 파충류(공룡)들이 멸종하였습니까?

- 알바렛(L. Alvarez)과 월터(Walter) 연구팀은 운석에 이리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대운석 충돌의 가설’을 내세워 이리듐을 많이 포함한 대운석의 지구충돌이 지구생물계의 대멸종을 일으켰다고 주장함. 이것이 근래 가장 유력한 공룡멸절 이론으로 내세워지고 있음
- 이 이론은 왜 공룡만 멸종하고 다른 생물들은 살아남았는가 하는 의문에는 답을 못함.
- C-T 경계의 이리듐 퇴적은 과거 심한 화산활동의 결과라고 추정됨. 이것은 노아홍수 당시 ‘큰 깊은 샘’(즉 화산폭발 등 큰 지각 변동)이 터졌다는 성경말씀과 잘 일치함

2-4-3. 노아의 대홍수에 의해 급격히 화석이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에서 수십 수백만년이 걸렸다는 지층을 뚫고 서 있는 다지층 나무화석이 발견됨
-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입을 무는 순간에 화석이 된 것이 있음

2-4-4. 석탄과 석유는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 대홍수와 대격변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이동되어온 동식물의 유기체가 대량적으로 신속히 매몰되면서 압력과 열을 받아 생성되었음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들이 발표됨

2-4-6.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어떤 매머드가 어떤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까?

- 알래스카에서만 6구가 발견됨. 1977년에 완전한 형체를 지닌 아기 매머드가 발견되었는데 나이가 6~12개월로 추정되는 디마라는 어린 수컷임

2-4-7. 노아의 대홍수와 시베리아에서 발굴되는 매머드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베레조브카 매머드의 위 속에서 발견된 24 파운드의 소화되지 아니한 식물들이 채취됨. 대부분의 식물들은 오늘날 추운 북쪽지역에서 자라지 않는 것임
- 매머드가 살던 당시 그 지역의 기후가 오늘날보다 더 온화했음을 이야기 해줌
- 매머드는 급격한 동결에 의한 순간적인 죽음과 함께 갑자기 매몰되었음에 틀림없음
- 궁창 위의 물이 제거되면서 온화하던 시베리아 일대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노아의 대홍수에 의한 급격한 기후격변 이론은 매머드의 급격한 동사와 매장을 잘 설명해줌

2-4-9. 노아의 홍수로 설명될 수 있지만 기존 학설인 동일과정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구 지층과 지형의 특성들이 있습니까?

- (교재 본문 참조 : 35가지 설명함)

2-4-10. 장엄한 협곡들은 진화론적인 견해와 달리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될 수 있습니까?

-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산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났음. 이 화산폭발은 그랜드 캐년의 1/40 규모인 30m 높이의 리틀 그랜드 캐년을 단 몇일만에 형성하였음. 이는 화산 폭발시 분출된 화산재와 분출된 물이 진흙으로 되어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 엄청난 침식과 다지층을 형성하게 되었음

2-5. 인구 민족의 형성과 이동

2-5-1.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현재 60억의 세계인구가 가능합니까?

- 수백만년전에 인류가 출현했다면 오늘날의 인구가 고작 60억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 홍수 이후 노아의 8식구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연간 인구증가율이 0.5%만 되어도 현재 인구에 도달하는 데에는 4,000년이면 충분함

2-5-2.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민족들의 기원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음
- 우리 몽고인종은 셈족에 속함

2-5-4. 어떤 이는 대홍수 전에 근동(近東)의 메소포타미아 유역에만 인류가 분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그렇지 않음. 첫째는 대홍수 이전시대 사람들의 장수에 기인된 방대한 인구증가 가능성이고, 둘째는 고고학적 사실인데 고대인들의 화석이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 이는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오래 전에 이미 사람들이 널리 북반구에 분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토론내용

〈스터디 공부 중에 나눈 토론 내용 요약〉

□ 노아의 대홍수 전에 비가 내렸을까?

- 지난 스터디 3차 회의록 참고

- ‘무지개-대홍수와 언약’이라는 제목의 창조과학기사 자료 참조(대구지부 홈페이지 게재)

- ‘무지개-대홍수 언약’ 기사 내용 요약:

· 무지개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분명히 노아의 언약에서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상세 내용: 기사 본문 참조)

· 칼빈의 주석: 어떤 저명한 신학자는 이 구절(창9:13)에서 대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하나도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박한 해석이다. 모세는 그 구절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지개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무지개 위에 어떤 표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징조를 주는 것이다.....

· 창세기 2:5-6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가 온 지면을 적셨던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사람도 있기 전이었다(5절). 성경은 창조주간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조건이 대홍수까지 16세기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구의 모든 물이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증발로 인하여 구름이 생기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 상태로 존재했었나?

- 본 스터디에서 사용하는 교재 내용에는 궁창 위의 물이 수증기 상태로 하늘 위에 존재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것은 ‘수증기 덮개’(water vapor canopy) 이론으로서 예전에 창조과학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많이 사용되었음

- 그러나, 이후 수증기 상태로 두껍게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했었던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너무 빈약한 설명인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서 요즘은 수증기 덮개 이론을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지 않음

-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으므로, 궁창 위의 물을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물이 궁창 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움. 즉,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설명은 아직 없음. 향후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무리하게 하늘의 물층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노아홍수와 빙하기가 관계가 있는가?

-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음. 노아홍수 후에 빙하기가 있었음
- 지난 주 대구지부 정기모임에서 강기태 강사의 ‘빙하기’ 세미나 강연이 있었음. 이와 연계하여 빙하기에 대한 토론을 하였음
-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에 빙하기가 수차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어왔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아홍수 후 한 차례의 빙하기로도 지구의 빙하기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
- 노아홍수 이후에 빙하기가 한 차례 있었음

□ 공룡의 멸종 원인은 무엇인가?

-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 공룡 멸종의 원인이라고 함.
- 그러나, 창조과학적으로는 노아홍수 후 기후가 급격히 변함으로써 공룡이 멸종해갔다고 설명함.
- 성경 욥기 40장, 41장에 ‘공룡’이라고 보이는 동물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음.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 이유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이백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성경이 쓰여진 것은 이천년 전이기 때문임
-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음. 이것은 진화론적 주장에서 공룡이 멸종한 이후에 인류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임. 따라서, 노아홍수 이후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서 공룡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서 (건강유지가 어렵고 먹이 급격히 줄어들어 등) 서서히 멸종해갔을 것으로 추정됨

□ 노아홍수 후 인구증가율로 현재 인구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없는가?

- (발제) 교재에 노아홍수 후 연간 인구증가율 0.5%로 노아 8식구에서 4,000년이 지나서 현재 인구에 도달한다고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년 계속 0.5%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동물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먹이가 풍부하고 개체수가 적을 때에는 동물 개체수가 직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 시간 후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면 먹이도 부족해지고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아짐. 사람의 인구 증가도 이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질병이나 전쟁에 대한 인구증가율 변동 변수가 생기는데 상기와 같이 단순히 인구증가율 0.5%로 계산해서 4천년 정도 지나서 현재 인구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동물의 경우에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S자 형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생물학교재에 나와 있음. 그리고,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여럿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인류의 기원은 수백만년에서 수십만년 전이라고 함. 이와 같은 오랜 진화론적 기간을 위와 같은 인구증가율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대입하더라도 현재 세계인구는 너무 적은 숫자임
- 오히려 위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인구증가율을 더 낮추더라도 지금 인구수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창조과학적 설명이 더 타당함

- 인구증가율을 계산한 논문이 있는데 다음 스터디에서 보다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음

□ 노아홍수 그림이 그려진 인디언석판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 (발제) 노아홍수 과정이 그려진 인디언 석판이 한 때 창조과학 자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 년전에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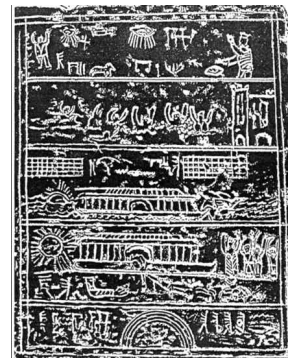
- 인디언석판은 한국창조과학회 창조지 1985년 6월호에 처음 소개되고 얼마 전까지 창조과학 자료로 많이 사용되었음.

- 해외 창조과학회에서는 인디언석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었음

- 인디언석판은 미국 미시건에서 1896년경에 발견되었음

- 수 년전에 인디언석판이 인디언이 오래 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4세기 콥트 이집트회에서 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따라서, 몇 년전 한국창조과학회 강사 워크숍에서 인디언석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문제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창조과학 자료로 인디언 석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음



<인디언 석판>

기타토의

□ 스터디 모임 관련 토의

- 월 2회, 둘째 목요일과 넷째 목요일에 스터디 하기로 함

- 모임 진행: 다과친교, 찬양(기도), 교재공부, 토의, 기도, 마무리

- 진행방식은 매 모임에서 교재의 일정 분량을 김영호 팀장의 사회로 함께 읽고 자유 토의하며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

- 다음 스터디: 2017년 2월 9일(목) 19:00

- 2017년 2월 스터디: 2월 9일(목) & 23일(목) 19:00

- 현재 교재 후 다음 교재는 다음 달에 정하기로 하고, 대구지부 재원으로 교재를 구입하여 배포하여 스터디에 교재로 사용함

- 신입 멤버(환영합니다^^): 문은경 자매님(김항구 형제의 예비 신부), 김건우 형제님(김동준 목사님의 3남, 경북대 생물학과 입학예정)

다음 모임

2017년 2월 9일(목) 19:00 (교재, 3-1 인류의 기원, 3-2 고대 인물과 성경 (85~99쪽))

그 다음 모임 2017년 2월 23일(목) 19:00 [참조](#)

스터디 모습



지 부 소 식

2017년 2월 13일~3월 13일(5주)

창조과학 기본과정 매주 월요일 저녁7시-9시 반 (장소: 경주 온누리 교회)

2017년 2월 09(목)

창조과학 스터디모임 (5) (장소: 경북대학교)

2017년 2월 16(목)

2월 정기모임

2017년 2월 23(목)

창조과학 스터디모임 (6) (장소: 경북대학교)

**** 편집자의 변 *****

소식지를 편집 하는 것 보다 편집자의 변을 남기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창조과학 스터디 모임을 참석하면서 다양한 회원들 한분 한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에서 벗어나 어떻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창조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창조과학회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각자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여서 공부하고 내가 한 성경속 궁금증에 공감하며 그 생각이 질문이 되고 그 질문들이 해결되는 기쁨도 함께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랑하는 이 모임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갑니다.

2월에는 경주에서 창조과학 기본과정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과정들과 강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분 한분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있도록 건강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을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도 운동화 끈을 매고 함께 달려갑니다. (현옥)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21.or.kr@gmail.com)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